사찰부지에 불법 기독교 시설이 웬말?

무등산 원효사 "무단 건축된 제일기도원, 증·개축까지 감행"

원효사 토지승낙 없이 무단 사용
불법성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중
제일기도원, 증·개축 감행 '논란'
"자진철거 한다더니 편의시설 추가"


무등산 원효사 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제일기도원이 무단으로 증 · 개축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찰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기독교 시설이 무단으로 증 · 개축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무등산 원효사(주지 해중)는 지난 9월 22일 사찰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되어 최근 증 · 개축이 이뤄지고 있는 제일기도원(대표 임영근)에 대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학교법인 광신학원이 소유한 제일기도원은 1960년대에 건립된 기독교 시설로 현재 기도원과 사무실, 생활관 등 총 5동의 건물이 지어져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시설인 기도원(303㎡)과 화장실 1동(12㎡), 사무실 일부가 원효사 토지승낙 없이 무단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원효사 측은 지난 2016년 1월 제일기도원이 소유한 토지 대한 매수 의사 공문을 보내고, 4월 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해 북구청과 무등산관리사무소측에 사찰 소유지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원효사는 사찰부지의 지상에 건립된 건물의 불법성에 대한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효사 측은 이에 대해 "사찰의 부지가 다른 종교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찰의 입장은 이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제일기도원측은 최근 무단으로 증 · 개축 및 시설물의 보수를 진행하고 있어 관계기관인 국립공원무등산관리사무소와 해당 관청에 시정요구를 요청했으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에 대해서도 북구청과 무등산관리사무소는 "철거곤란" "사생활침해 우려 답변 불가"의 답변을 내놨다. 그리고 재차 통지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소 측은 "과거 광주시의 관할 차원 문제로 업무관련성 부인"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제일기도원의 보수공사에 따른 고발 경위는 이렇다.

2015년 9월 제일기도원 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추진위가 구성되고, 2016년 3월 무등산공원사무소에 보수공사 허가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공원관리사무소측은 "석면 등 가설물 철거를 인정하고 다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통보"를 내렸다. 또한 5월에는 제일기도원에서 원효사 토지 3,000평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원효사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제일기도원은 7월 폐기물 처리 명분으로 광주북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보수공사를 강행하면서 무단으로 수목을 벌채하고 불법 증개축을 진행, 자연공원법 위반(무단 수목 벌채 벌금 100만원)과 무단 개축 구조물에 대한 철거 등을 자진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9월 22일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 개축 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진행되지 않고 도리어 에어컨 등 다양한 편의시설 등이 추가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검단산사 은혜에 소금 공양 올립니다"

선운사, 9월 23일 선운문화제 개최

붉은 꽃무릇이 온 산하를 물들이고 있는 고창 선운사에서 제10회 선운문화제가 열렸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9월 23일 '1,500년의 값진 인연, 선운사 보은염'을 주제로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축제인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 선운문화제는 전북 고창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가치를 드높이고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상생의 모델을 제시하기위해 기획됐다.

선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 사시사철 빼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선운사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문화 중심으로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운문화제는 경판 이운식, 보은염 이운식, 산사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부도전에서 헌다례를 시작으로 '보은염 이운식'이 열렸다. 1,500년을 이어온 '보은염 이운식'은 선운사 창건주 검단선사가 마을주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가르쳐 생계를 잇게 한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봄과 가을, 선운사에 소금 두 가마니를 공양하는 의식이다.

백제시대 당시의 복장으로 지게에 소금 가마니를 지고 선운사에 도착한 사등마을 주민들은 선운사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께 소금을 공양 올리는 의식을 재현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은 보은염 이운 행렬을 맞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보은염을 주제로 한 인형극을 선보였으며, 선운사의 명물인 꽃무릇을 배경으로 한 시화전에 대한 시상식과 석씨원류 경판이운식이 열렸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사중스님들이 마을주민들에게 공양 받은 보은염을 이운하고 있다.

행사의 대미는 부처님 일대기와 가르침이 서역 및 중국에 전파된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술한 〈석씨원류〉 경판 이운식이 장식했다. 선운사 불자들과 관광객들은 각족 번과 만장을 앞세워 직접 경판을 직접 머리에 이고 일주문 천왕문을 거쳐 경내의 법계도를 돌아 제자리에 안장됐다.

마지막 행사로는 선운문화제의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불자 재즈보컬리스트 웅산, 소프라노 김태은, 선운사 합창단이 출연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선운문화제는 수준 높은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선운사는 검단선사의 지역을 위한 정신을 이어 고창 발전은 물론 맑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선운사 경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으며 우정본부와 제휴한 가을편지쓰기, 페이스페인팅, 전통문양 그리기, 한지 바람개비, 전통 매듭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6대 종교인 위한 '달빛 차' 음악회

기장 청량사, 10월 15일 오후 6시

6대 종교인과 함께하는 화합의 음악회가 열린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이 '달빛 차(茶) 음악회'를 부산 기장 청량사에서 10월 15일 오후 6시에 개최한다.

달빛 차 음악회는 전국 문화 예술인이 후원하고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 지도자가 함께해 음악과 문학, 그리고 차로 화합하는 자리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청량사는 밝은 달 아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 자리에 6대 종교 지도자가 함께 하는 화합의 시간이 열리는 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1부 '기장 차 문화대학 2기 졸업식'이 앞서 열린다. 기장 차문화대학은 전국 최초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다도를 지도했다. 이번 2기 졸업은 소방서에서 다도를 배운 소방관들이 졸업을 기념하며 차 시연을 선보인다. 2부는 '달빛 차 음악회'로, 관현악 3중주와 시낭송 국악 및 가요 공연 등이 무대를 채운다.

이 자리에는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 기장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 외 기장차문화대학 강사 교수, 차문화대학 기장경찰서 1기 졸업생, (사)부산여성문학인협회 회원 등 종교인과 문화 예술인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청량사는 이날 '향기로운 문화갤러리' 현판식도 개최한다. 향기로운 문화갤러리는 문화예술인의 소통 공간이자 청량사 신도들의 쉼터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성림당 월산 대종사 20주기 추모다례재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성림당 월산 대종사 20주기 추모다례재를 9월 24일 경내 무설전에서 봉행했다. 〈사진〉

이날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인각사 주지 원각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산 대종사는 "도란, 천지와 태양의 밖을 통해야 한다. 그 또한 도는 변함없이 멸한 것"이라는 육성법문을 설했다.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과 대중 스님들은 종사영반 삼배한 뒤 부도탑전에 참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포산당 혜인 스님 1주기 부도탑비 제막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돈관)는 9월 22일 부도전에서 조실 포산당 혜인 스님 부도탑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사진〉

혜인 스님은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은해사 조실과 제주 약천사 회주를 지냈다. 지난해 6월 팔공산 은해사 기기암 선원에서 수선안거 중 2016년 세수 75세, 법납 62년을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이번 조성된 부도탑비는 혜인 스님 열반 1주기를 맞아 그 가르침과 덕목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조성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조계종 대구 불영사 낙성식

(재)한국불교조계종 중흥교원 대구 종무원 불영사(주지 효상)는 낙성식 및 점안 법요식을 9월 24일 봉행했다. 〈사진〉

주지 효상 스님은 "천일기도 회향의 인연으로 팔공산 중턱에 자리 잡은 불영사와 각별한 인연이 되어 새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곳은 부처님 가피가 곳곳에 서려있어 수행과 기도하기 좋은 명당이다. 포교와 수행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원력을 세워 사중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읽고 들을 수 있는
『우리말 팔만대장경』
스마트폰 앱으로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어갑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법공양 대불사에 함께할 도반을 모십니다.

www.kyba.org | T. 02)738-1920 | KB 국민은행 023501-04-010964 대한불교청년회